

# 「韓·中科技협력센터」 설립

## 서울과 北京에...양국기업간 기술중개도

韓·中 과학기술협력센터가 서울과 北京에 각각 설치된다.

金鎮炫과기처장관과 宋健 中國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부총리급)은 11월25일~12월2일 서울에서 양국간 과학기술협력협정 체결이후 첫 과학기술장관회담을 개최하고 韓·中 양국에 각각 韓·中과학기술협력센터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양국 과학기술협력의 전담 창구역할을 하게 될 협력센터는 과학기술정보교류, 협력사업발굴, 연구원의 현지과전 및 훈련등 상호 보완성에 입각한 실리적이고 호혜적인 협력을 추구하게 된다.

이와함께 양국 기업간 기술협력을 중개·알선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한국은 11월중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韓·中과학기술협력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며, 中國의 北京에 설치되는 中·韓과학기술협력센터는 내년 상반기 중 출범할 예정으로 이번 과학기술장관회담에서 구체적인 설립일정이 논의된다.

### 獨逸 국제發明展 제패

韓國, 19점중 17개메달 수상

우리나라가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92독일국제발명전을 제패했다. 10월28일부터 11월

1일까지 독일 뉘른베르크무역센터에서 개최된 「92 독일국제 아이디어발명·신제품전시회」에 19점의 발명품을 출품한 우리나라는 특별상 1, 금상 4, 은상 6, 동상 6등 17개의 메달을 수상했다.

이번 92독일국제발명전은 독일 미국 중국 독립국가연합 대만 프랑스 일본 등 24개국에서 2백50점이 출품되었는데 「세레늄함유 화장비누의 제조방법」을 출품한 李孝昌씨(효창세레늄대표)가 최고상인 대회장특별상을, 「전기치약압출기」를 출품한 崔敏基씨(발명가)등 4명이 금상을, 「전기축열식 전

열접구들 및 그 난방장치」를 출품한 崔永澤씨(현대전자구들대표) 등 6명이 은상을, 「패킹」을 출품한 李相春씨(발명가)등 7명이 동상을 수상했다.

### 헬륨·네온레이저 開發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저가격의 주파수 및 출력안정화 레이저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최근 개발됐다.

이 연구원에 따르면 개발된 헬륨네온(He-Ne) 레이저는 주파수안정도가  $\pm 2\text{MHz}$ , 출력안정도가  $\pm 0.05\%$ 이하이며 레이저출력이 3밀리와트 수준으로 성능이 우수하다는 것이다.

제작된 안정화레이저는 정밀길이측정 정밀광응용측정 밀도표준球직경측정 등에 활용될 수 있다.

## 韓·美기술동맹 구축키로

### 科技處, 내년중 양국협력포럼 개최

과학기술처는 클린턴 美행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통상 마찰과 시장개방압력이 심화될 것에 대비해 韓美간의 전략적 기술동맹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韓國이 제2의 日本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美國의 도움으로 對日의존형 산업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美國과의 마찰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과기처는 이를 위해 ▲내년 1~2월 미국에서 「제1차 韓美과학기술협력포럼」을 개최, 구체적인 협력전략 및 방법을 제시하고 ▲양국간 科技협정이 발효되는대로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열어 G-7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첨단기술공동연구, 人力 및 정보교류의 촉진 등을 지원할 韓美과학기술개발재단의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 技術士 사무소개설 制度化

## 經科委법안의결, 엔지니어링기술도입 신고제로

기술사들의 사무소개설치가 제도화되고 설계도에 대한 책임이 무거워지는 한편 엔지니어링업체들의 기술도입이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바뀐다.

국회 經科委는 10월30일 이 같은 내용의 기술사법안과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안을 의결했다.

새로 마련된 기술사법에 따르면 정부는 기술사들의 수요에추결과를 시험실시에 반영, 분야별 기술사부족현상을 개선하고 기술사들이 사무소를 개설해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었으며 설계·감리·자재검사등의 활동결과에 대한 책임감을 고취시키기 위해 기술사들이 작성한 설계도 등에 반드시 서명·날인하도록 했다. 또 한국기술사협회를 설립해 기술사들의 직무개발과 능력향상, 산업기술지도, 정부의 위탁업무수행, 외국기술사단체와의 기술교류 등을 할 수 있게 했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은 기술용역업등록제와 외국엔지니어링기술도입승인제를 모두 신고제로 전환하고 정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등이 엔지니어링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참여자의 수행능력을 사전평가하기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제도를 두었다. 이와함께 중전

의 한국기술용역협회를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로 명칭을 바꾸고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했다.

### 「KT」마크 내년 실시

#### 국내신기술 제조상품에

국내에서 신기술을 적용, 제조한 상품중 기술 및 성능이 뛰어난 제품에 대해 내년부터 정부가 공인하는 국산신기술(KT)마크가 부여된다.

과기처는 11월9일 국산신기술제품의 성능 및 신뢰도에 대한 일반소비자들의 인식을 높이고 국산품사용 분위기를 조성키 위해 정부가 제품의 기술력을 인정해 주는 국산신기술 마크제도를 제정,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과기처는 기술개발이 급속히 이루어지는 현추세를 감안, 한번 공인받은 제품은 2년동안만 KT마크부착을 허용할 예정인데 기존 기술을 개선하게 되면 부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특정연구사업 評價制

#### 4년부터 4단계로 시행

지난 '82년이후 10년간 정부출연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추진해온 특정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제도가 내년부터 전

면개편·시행된다.

과학기술처가 최근 마련한 개선안에 따르면 특정연구개발사업에 대한 多段階평가제도를 도입해 자체평가-전문가평가-전문위원평가-위원회평가 등 4단계의 절차를 밟도록 함으로써 평가방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특히 學緣·地緣등은정주의적 평가요소를 사전배제하기 위해 전문가 데이터베이스에 의한 전문가비밀우편평가를 모든 과제에 대해 적용할 계획이다.

또 최초과정 선정에 있어 과제수행의 타당성·능력·장애요인 등을 사전 검토해 불필요한 과제의 연구착수를 미연에 방지하고 연구종료후의 결과도 추적하는 시스템을 두기로 했다.

### 전자通信研 부설

#### 硏究관리단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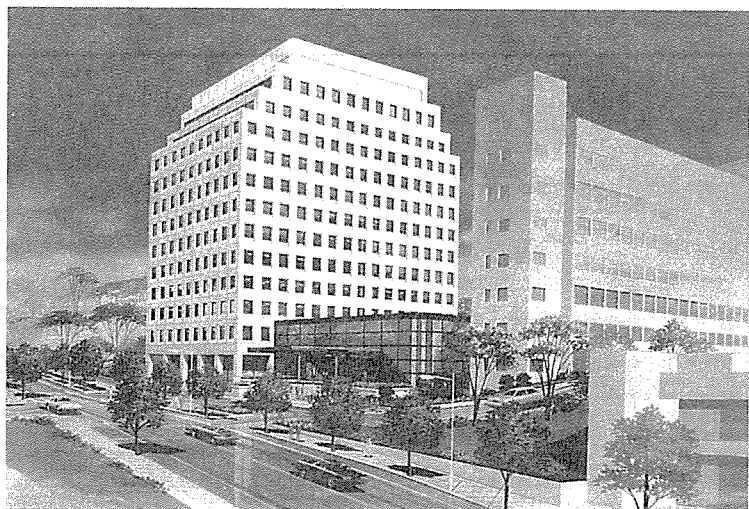
정보통신분야의 정책과제 심의관리 평가와 통신사업자 과제의 중복여부등 연구관련 종합조정기능을 갖는 정보통신연구관리단이 11월16일 한국전자통신연구소 부설기관으로 신설됐다.

연구관리단에는 정보통신기술분야 전문가 15인이내로 구성하는 연구관리 위원회를 설치하고 ▲연구개발정책 ▲교환 ▲전송 ▲무선 ▲반도체 ▲컴퓨터등 6개분야별 관리위원과 연구관리부 및 행정실을 두게 된다.

# 「과학기술진흥센터」歷史的 起工

## 30년 과학기술계 宿願...오랜 각고끝에 結實

### 金鍾泌 民自대표최고위원 건립비지원약속



▲ 서울 강남구 역삼동 현 과총회관옆에 건립될 「과학기술진흥센터」 조감도. 오른쪽 건물이 과총회관.

1백만 과학기술인의 숙원인 「과학기술진흥센터」가 10월30일 金鍾泌민자당대표최고위원, 金鎮炫과기처장관, 閔寬植과학기술진흥센터건립기성회 회장, 金始中科總회장직무대행, 시공업체인 대우그룹경남기업 金學鎔사장등 관계인사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역사적인 기공식을 갖고 착공됐다.

韓國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총 2백50억원의 공사비를 들여 건립하는 과학기술진흥센터는 강남구 역삼동 635의4 현과총회관옆 1,250평 부지위에 지상 13층 지하4층, 연건평 8,150평으로 오는 95년 4월 준공에

정이다.

이날 기공식은 鄭助英과학기술진흥센터 건립추진위원장의 경과보고에 이어 金始中科總회장대행의 식사, 金鎮炫과기처장관의 치사, 金鍾泌민자당대표최고위원의 축사, 閔寬植科總명예회장의 격려사, 李旭桓과학기술진흥센터건설본부장의 센터건립공사개요설명이 있는 다음 金鍾泌민자당대표최고위원과 과총회장단을 비롯한 내빈들의 시삽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金始中 科總회장대행은 式辭에서 「1백만과학기술인의 숙원사업이었던 과학기술진흥센터의 기공이 갖는 의미가 매우

크다」고 강조하면서 「과학기술진흥센터는 그동안 우리 科總산하의 260여 회원단체들이 절실히 필요로 했던 학술발표의 場은 물론 시대적으로 긴요한 국제회의장 등을 갈망해온 우리 과학기술인들의 여망에 부응하여 科總의 새로운 도약과 전진을 기약하는 상징적인 공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金회장대행은 이어 「현재의 시점에서는 재정을 비롯한 여러 애로가 있으나 앞으로 정부당국은 물론 산업계와 과학기술계가 힘을 모으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金鍾泌민자당대표최고위원은 축사에서 「지난 1975년 국무총리였을 당시 기존 과학기술회관의 초석을 세웠는데 17층 규모의 새 과학기술진흥센터 건립기공식현장에 와서보니 새로운 감회를 느끼게 된다」고 전제하고 「그동안 과학기술인들의 피눈물나는 노력으로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이만큼 발전해 왔지만 아직도 과학기술의 선진화라는 긴 도정을 남겨놓고 있으므로 앞으로 과학기술단체들이 이 과학기술진흥센터에서 우리나라 과학기술

## 과학기술계뉴스

발전의 견인차 노력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金대표최고위원은 이어 과학기술진흥센터가 차질없이 공기 내에 건립되어 우리나라 과학기술진흥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예산지원을 약속, 청중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다.

또한 金鎭炫과학기술장관은 기사를 통해 『기존의 과학기술회관은 우리 과학기술인의 정신적 요람으로 많은 기여를 해왔을 뿐만 아니라 초창기의 과학기술 불모지대에서 많은 학술단체의 보금자리로서는 물론 국내외 과학기술인의 대화의 場으로서도 훌륭한 업적을 남겨 왔다』고 전제하고 『이제 국가적·사회적 발전과 함께 새로운 과학기술인의 전당으로 오늘 이 과학기술



진흥센터의 기공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진흥창달과 풍토조성의 획기적 공간으로서 새로운 사명과 역할을 다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공한 과학기술진흥센터는 7백석규모의 국제회의장을 비롯 4백석규모의 중강당과 1백~2백석규모의 소회의실을 갖춰 각종 과학기술관련 국제회의 및 학회학술행사 등의 모임을 치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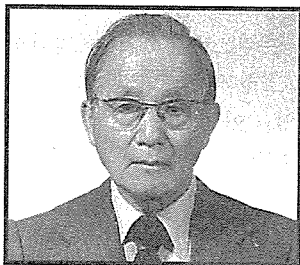
수 있게 되며 10~12층에는 과학기술전문도서관, 정보처리실과 과학기술을 위한 만남의 광장 등이 들어서게 된다. 그리고 3개층은 학회사무실, 5개층은 일반사무실로 쓸 계획이다.

科總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센터건립공사 시공업체를 경남 기업(주)로 선정했으며 설계감리는 <주>서한종합건축사 사무소에서 맡도록 했다.

## ● 韓國과학계의 泰斗 ● 李泰圭박사 別世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의 泰斗인 李泰圭박사(한국과학기술원 석좌교수)가 10월26일 오후7시30분 忠南大 병원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0세.

1902년 忠南 예산에서 태어난 李박사는 日本 京都帝大 화학과를 졸업하고 31년 동교 대학원에서 理學박사학위를 받은 후 이 대학 최초의 한국인 교수로 재직했으며 해방후 귀국해 서울大 초대 문리대학장을



〈故 李泰圭박사〉

지냈다. 48년 美國유타大 헬리아이링박사의 초청으로 美國으로 건너가 73년 영구 귀국할 때까지 유타大 화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귀국후 지금까지 한국과학기술원 교수로 있으면서 최근에도 강단에 선 외국 과학자로 3백여편의 이론화학분야 논문을 발표했다. 특히 55년에 발표한 「李-아이링이론」은 분자점성학의 기초가 된 유동이론으로 학계에 큰 영향을 끼쳐 세계 이론화학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같은 업적으로 학술원상을 비롯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당과학상, 서울시문화상, 5.16문화상, 세종문화상 등을 받았다.

유족으로는 장남 肅仁씨등 1男3녀가 있으며 부인과는 지난

## 과학기술계뉴스

해 사별했다. 장례는 10월30일 한국과학기술원장으로 치러졌으며 故人の 유해는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에 안장됐다.

한국과학기술원에서 거행된 故 李泰圭박사 영결식에서 金東一장례위원장(科總상임고문)은 추도사를 통해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의 泰斗이시고 最高元老로서 後學들의 영원한 귀감이신 李泰圭박사님은 국내뿐

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고명한 이론화학자로서 우리나라 과학계를 이끌어 오신 정신적 지주였다』고 전제하고 『오늘로 비록 우리들의 곁을 떠나지만 박사께서 남기신 학문적·정신적 유산의 풍요함에 우리들은 애끓는 마음속에서도 박사님을 우러르며 영원히 그 遺志를 받들어 모셔나갈 것』이라고 故人の 업적을 기렸다.

취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서울대학교는 소위 國大案 반대사건으로 인하여 교수와 학생이 좌우로 사상이 대립되어 혼란과 난동이 연속되었고 세계적 과학자를 지향하던 李박사께서는 그 자리에 안주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귀국 3년 후인 1948년에 美國 유타대학 화학과교수로 초빙되어 다시 조국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박사께서는 짧은 기간이나마 모국에 머무는 동안 학사행정과 학생지도에 원숙하게 대처함으로써 서울대학교 건설에 크게 공헌하였고, 또 대한화학회를 창립하여 초대 회장에 선임되어 국내 과학기술 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하셨습니다.

박사께서는 그 후 25년이란 긴 세월을 유타대학에서 강의와 연구생활을 계속하고 1971년 명예교수로 계시다가 1973년 다시 귀국하여 한국과학기술원(현재 한국과학기술원) 명예교수, 화학과 석좌교수로 초빙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박사께서 25년이란 긴 시간에 걸친 유타대학 재직중의 연구성과가 박사를 세계적 이론화학자로 대성시키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사께서는 특히 촉매이론, 화학반응속도이론, 액체이론, 점성이론 등 여러 분야에서 예를 들면, 레오로지에 관하여 박사의 성을 딴 <李-아이링이론(Ree-Eyring Theory)> 등

## 追悼辭

金東一(과총 상임고문)



〈金東一 박사〉

오늘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의 泰斗이시고 最高元老로서 後學들의 영원한 귀감이신 李泰圭박사님의 영전에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되는 비통한 마음 그 무엇에 비할 수가 없습니다.

박사님은 비단 國內뿐만 아니라 世界的으로 고명한 이론화학자로서 우리나라 과학계를 이끌어 오신 정신적 지주이셨습니다.

박사께서는 大韓帝國 말기의 어지러운 시대에 忠南 禮山에

서 출생하여 일제치하에서 모든 악조건을 극복하여 일찍이 日本 廣島 고등사범학교를 거쳐 京都제국대학 화학과를 졸업한 후 독창적인 뛰어난 연구 논문을 잇달아 발표하여, 1931년 이학박사학위취득에 이어 1938년에는 그 당시 韓國人으로서 처음으로 과격적인 제국대학교수로 발탁되었습니다. 그 명성으로 인하여 미국의 명문인 프린스턴대학의 초빙과학자로 초청되어 2년반동안 아인슈타인, 아이링 등 그 대학에 모여있던 세계적 碩學들과 어울려 연구생활을 계속하다가 세계대전의 발발로 다시 京都대학으로 돌아가 계시다가 1945년 일본이 패망하고 祖國이 해방된 직후 금의환국하여 경성대학 이공학부장을 거쳐 서울대학교 初代 물리대학장에

## 李泰圭박사를 추념함

새학설에 관한 300여편의 연구  
문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박사께서는 일본에  
量子 화학을 처음으로 도입하였  
는데 이런 업적등이 박사로서 하  
여금 세계 이론화학계에서 높  
은 평가를 얻게 하였다고 생각  
합니다.

박사께서는 1965년 노벨상 추  
천위원에 위촉된 바 있는데 이  
에 관련하여 우리들은 박사께  
서 꼭 노벨상을 받아야 할 분  
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것이 뜻대로 되지 못한 것은  
실로 본인뿐만 아니라 우리 과  
학기술계의 큰 아쉬움이라 하  
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들은 李박사가 결코 노벨수상  
자들에게 뒤지는 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과학자로서 이러한 면모에  
못지않게 박사께서는 溫和仁慈  
하신 天稟을 가지시고 애국정  
신에 透徹하며 清廉潔白하고,  
勤儉 力行 友誼敦篤하는 고귀  
한 인격자이면서도 항상 諧謔  
을 즐기시는 人品을 가지신 분  
으로서 弟子와 友人은 물론 모  
든 사회인사에게 존경과 흠모  
의 대상이었습니다.

이제 박사님께서서는 오늘로  
비록 우리들의 곁을 떠나가십  
니다마는 박사님이 남기신 學  
問的·精神의 유산의 풍요함에  
우리들은 애틋한 마음속에서도  
박사님을 우러르며 영원히 그  
遺志를 받들어 모셔나갈 것입  
니다.

부디 먼길 편안히 떠나시옵  
소서!



〈安東赫박사〉

1992년 10월 26일 한국과학  
기술원 석좌교수 李泰圭박사가  
서거하였다. 90연세로 현직이  
란 과거의 유례가 없었다. 일  
찍이 공자는 자기의 행적을  
“배우기에 물리지 않고, 남을  
깨우치기에 지치지 않았다” 하  
였는데, 李박사의 평생이 그  
러하였다.

그가 충남 예산에서 태어나  
가난을 무릅쓰고 경성고등학교  
(현 경기고)를 마치고, 소학교  
교원으로 일하다가, 학문에 뜻  
을 두고, 日本 히로시마 고등  
사범학교를 거쳐, 교도제국대  
학 이학부 화학과에 들어가,  
거기서 이학박사, 교수가 되었  
다. 이는 지금의 우리 젊은이  
들에게는 범상하게 여겨지겠지  
만, 그 당시로는 우리 사회의  
처음있는 경사로서, 우리 민족  
의 재능과 기백을 세계에 증명  
한 것으로 우리 앞날의 큰 희  
망과 자신을 주었다.

내가 그를 처음 만난 것은  
1927년 여름 일본학술협회 총

安東赫(과총고문)

회(큐우슈우제대)에서, 그가  
「니켈 촉매기작의 실험연구」를  
발표했을 때였다. 새파란 날카  
로운 젊은 학자였다. 이어서  
나는 그의 실험실을 찾았고,  
이 연구가 그의 학위논문 주제  
로 기억하고 있다. 그 후 나는  
귀국하여 공업기술연구와 교수  
에 종사하게 되었는데, 이따  
금 교토대 화학연구소를 방문  
하고, 「물리 화학의 진보」지에  
실린 그의 논문을 읽었다.

그 시기에 교토대학에는 그  
와 더불어 이승기, 박철재 세  
박사의 업적이 두드러졌고, 그  
분들의 스승인 기다, 호리바,  
사구라다, 요시다 제교수를 알  
게 되었다. 또 나의 은사 니시  
가야교수와 그리고 李박사의  
고등사범 동창 김용완박사(현  
경방 명예회장)로부터 늘 李박  
사의 소식을 전문하고 있었다.

이 무렵 그는 내 동창사인  
정지용군(당시 도시샤대 학생)  
의 주선을 부인을 맞이하여 자  
녀를 기르고 평생 화목한 가정  
을 이루었다.

이즈음 세계 과학계는 양자  
역학의 혁명이 일어 중년 학자  
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는데 李  
박사도 여기 휩쓸려 땀을 흘린  
줄 안다. 그는 실험에서 이론  
으로 방향을 돌려 「화학반응속  
도이론」으로 들어가, 당시 세

계에서 이 분야의 마술사로 이름 높은 프린스턴대학의 아이팅교수를 찾아 30년대 말기에 도미하게 되었다. 이 시절은 2차 세계대전이 이미 시작되어, 태평양의 파도도 높아 뒤숭숭한 판국이었으나,李박사는 오로지 연구에 전념,美·日開戰 직전에 교토로 돌아왔다. 그때의 업적은 미국「물리화학」지에 두차례의 논문이 빛을 내고 있었다.

이어서 원폭이 히로시마에 떨어지고 교토의 이승기·박철재박사가 종전으로 풀려 뒤늦게 귀국하게 된것이다. 그 즈음 일본의 동료들은 그가 실기 하였으므로 요직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라 하였는 데, 결국 세분 다 경성제국대학에 초빙되고,李박사는 이공학부장의 감투를 썼고, 이내 서울대 문리대학장에 취임했다. 45-48년 격동기에 그는 우선 문리대 화학과조직에서는 대학 후배를 주축으로 포석하여 바람이 적었고, 대한화학회를 창설하여 초대회장으로 추대되고, 매스컴에 한국과학기술원 설치론등을 퍼내기도 하고, 경향각지의 과학강연 초청에 응하여, 말을 좀 더듬었으나 유우머가 있어 청중을 즐겁게 하는등, 매우 바쁘게 지냈다.

서울대학교가 창설되자李박사와 내외인사들이 나에게 공대학장을 맡으라고 강요했지만, 종합절차가 소홀했고, 그보다도 이에 앞서 나는 서울공업대학을 세운다고 공약하였기에 이를 거

절할 수 밖에 없었고, 그 시기에는 내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화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해방후 3년동안, 그가 가장 고민한 것은 서울대 종합반대운동에 대응해 설 수 밖에 없어, 거의 사면초가지경을 당해야 했던 일이다. 그가 학자요 종교에 의지하지만 그렇다고 세속권력에 결코 무관심한 것은 아니였다. 그도 그 나름대로 경국체제의 생각이 간절한 바가 있었으나, 그의 짧고 쓴, 학장 경험은 그의 환상을 식게하였다.

48년 여름 그는 학장, 교수를 집어치고 가족과 떨어져 이전의 知友 아이팅교수의 초청을 받아들여 유타대학교수로 부임하여, 그가 좋아하는 학문 연구에 다시 몰두하게 된 것이다. 이 시기에 그는 쓸모있는 액체이론을 발표하여 학계에 상찬과 명예를 얻고, 오랜후 이 이론은 조 순탁박사에 엄밀한 통계역학적 검증에도 견뎌 내었다 한다.

또 노벨상후보 추천에도 관계하고 다수의 한국학도를 길러냈다. 그러나 타향살이의 시름도 적지 않았다. 우선은 서울에 떼어 놓은 가족인데, 이 문제는 다행히도 친교가 깊은 장면박사의 주선으로 해결되었다. 다음은 조국에 대한 봉사 의무의 갈등인데, 그간 2공초에 문교부입각 요청도 받았으나, 이미 그는 그가 할 일이 아님을 알았고, 70년에 한국과학원이 창설된 후에서야, 비로

소 그가 앓을자리를 얻은 것이다. 이 무렵李박사의 학문은 「점성유체이론」의 방향을 잡아 많은 업적이 쏟아져 나왔다.

70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정부 특히 군부는 과학은 말할 것도 없고 기술도 외국의 원조나, 사오면 되지 어느 하가에 연구냐는 미군청정이래의 안이한 생각에 젖어 있었는데, 막상 일을 일으켜보니 제 기술, 제 과학이 있어야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우선 급한대로 해외한국학도들의 유치에 눈을 돌리게 되었고, 한국과학기술연구소가 설립되었다. 이런 분위기에서李박사도 오래간만에 고국을 방문하게 되어, 많은 친지와 제자들의 환영을 받고, 당시 문교부장관 민 관식박사의 천거로 우리나라 교수로는 처음 국민훈장 무궁화장이 수여되었다.

그는 미국에서 드물게 나에게 수찰을 보내왔는데, 그 문장의 완벽함과, 글씨의 절묘함에 놀라, 편지에서 손을 떼지 못했다. 그는 연구에 바빠 책을 쓸 겨를이 없었다. 회갑, 고회와 팔순을 기념하기 위한 방대한 세권의 논문집과, 미수(88)적에 자서전 한권은 제자 등의 정성으로 편찬된 것이다. 다만 여기에는 해방이전 논문이 수록되지 못했다.

마침내李박사는 오랜 소원이던 조국에 돌아와 한국과학원교수로 학문연구와 후진양성에 전념하게 되었다. 이는 근본적으로 그의 능력의 소치이

## 과학기술계뉴스

기는 하나, 그의 친구와 제자들의 노력도 적지 않았다. 그는 학술원 일에도 충실하였고 대전으로 이사한 뒤에도 회의에 출석하여 원로의 구실을 톡톡히 해냈으며, 많은 상도 타고 명예도 얻었다. 이내 누구에게나 피치 못할 노력이 그에게도 찾아오고, 또 심장이 약해지니 어찌하리. 그러나 그는 이에 굴하지 않고, 명랑하고 당당하게 부진런히 소임을 다 하였다. 주의에서 간곡히 말려도 끝내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원래 근엄하고 소심한 학자이지만 이른 바 공부벌레는 아니다. 나와는 가끔 서로 농담을 즐겼다. 그의 유우머는 그의 천진난만한 장난끼에서 우러나오는 것으로서 주위를 즐겁게 해준다. 해방직후 그와 김동일박사와 나는 강연초청으로 개성에 가서 민관식박사의 사랑에 투숙했었는데, 인사치레로 동숙하려고 버티는 신혼인 주인을 신방으로 쫓아낸 일은 지금도 웃음을 자아낸다. 80년대에 우리는 여름에 전민제회장내외(현 한국화학회관 이사장)의 여주 송원농장에 초대를 받았는데,李박사는 느닷없이 풍악을 울리라 하니 산중에서 별수 없이 시골기생을 구하여 촌가를 부르게 하였다. 그 후에 한국 엔지니어클럽의 장수 연에서도 마경석이사장에게 삼현육각을 퍼내라 하여 얼마간 관례가 되기도 했다. 그가 화류의 명소에서 오래 살았다지만 그는 아무런 예능도 감감히

모르며, 술 담배도 못하고, 오입도 전무하여, 다만 장난기로 그러는 줄 여기고 있다.

48년 대한화학회 창립총회에서 나는李박사와 더불어 기념강연을 하였는데, 물론 그는 심오한 알아듣기 힘든 학설을 펼쳤고, 나는 기름의 용처를 장황하게 늘어놓았더니, 그는 대뜸 무엇에 쓰기만 하는게 학문이냐고 핀잔을 하여 여러 기초과학자들의 공감을 얻었으나, 세상 풍파를 겪은 뒷날, 그는 내게 자기 하는 일이 무슨 소용이 될는지 설명하려고 애쓰기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보니李박사는 행복에 넘치는 만년을 즐긴것 같으나, 아마 남보다는 그렇겠지만, 그에게도 누구나 있는 세속적 번뇌가 없지는 않았을 것이다. 첫째는 그도 남과같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바를 다 하지는 못한 것이다. 이른 바 욕구불만의 갈등은 누구에게나 있기 마련인데, 내가 알기에는 그는 매우 감성이 풍부한 성격이어서 인정에 늘 휘감겨 있어 눈물도 곧 잘 흘렸으며 조그만 일에도 신경을 썼다. 그는 가족친지 제자친구들의 곤란을 늘 염려하지만 그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을 못다하는 아쉬움이 늘 있다. 나나, 다른 친구도 그의 청을 꼭 들어 줄 수는 없었다. 내딸 규리가 서울대에서 KIST의무실에 파견되었을때李박사양주의 건강위기를 조금 보살핀 일이 있었는데, 그 후 두분은 끝

내 그애를 잊지 못했다.

또 80년 초겨울 5공의 거친 바람이 KIST에도 닥쳐와서 그와 나는 더불어 명색만인 고문직이 날아가고, 거기다 그에게는 살고있는 아파트에서 밀려나게 되어 그의 건강을 해치게 되었는데도, 오히려 나에게 병중에 어떻게 살거냐고 걱정을 해 주기에 나는 어이없이 웃어넘긴 일도 있었다.

그러니 그의 사랑하는 자녀의 일상, 부인과의 사별, 친족들의 이동, 제자들의 거취등은 그로서는 어쩔수 없는 것인데도 마음을 조이지 안았는가? 나나 그나 도통한 도인은 못되나, 그러나 그는 나보다 낙천적이었다. 아마 단순한 성품에 신심이 깊은 때문이겠지만...

李박사의 일생을 둘러볼 때에 나는 그가 특히 만년에 이르러 소명을 자각하고, 이에 충실하고자 애쓴 생애였다고 생각된다. 누구나 늙고 병나면 당연히 휴양하여야 하는데도 그는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고 "내게 내린 사명,이 나라 학문에 대한 책임이 내 어깨위에 실려있다"는 신념이 아니고는 이룰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천명을 다 하였으며, 그 스스로도 이제는 안심하여 쉬고, 주위에서는 그의 행적을 우러러 보고 찬양할만한 일이다. 이제 동안 백발의 화기에 애한 그의 모습을 사라졌으나, 그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새겨놓은 교훈은 길이 길이 남아 이어질 것이다.



# 「온누리號」 본격 海洋탐사

## 첨단해양관측장비사용 海底지질 조사

지난 1월 노르웨이에서 건조돼 우리측에 인도된 국내 최대의 종합해양조사선 온누리호(1천40백40 t)가 11월16일 본격적인 해양탐사에 나섰다.

스한 원리를 응용하며 최첨단 해양장비인 30 t 무게의 96채널 수신장치와 강력한 음파를 발생시키는 16개의 발신장치, 채널당 1초에 4천개의 샘플을



◀ 한국해양연구소의 다목적 해양조사선인 온누리호가 본격적인 해양탐사에 나섰다.

한국해양연구소는 온누리호가 16일 진해항을 출항, 약 한달간 동지나해와 서태평양 적도지역까지의 해역을 항해하면서 해양학분야의 종합연구를 실시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온누리호의 이번 항해에는 학계·산업계 및 연구소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고 각종 첨단 해양관측장비가 총동원돼 국내 해양학분야의 연구수준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온누리호는 이 기간에 주로 음파를 이용하여 해저면 아래 수km까지의 지질구조를 규명하는 「다중채널 반사파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다중채널반사파탐사에는 음파로 수심을 측정하는 것과 비

기록할 수 있는 디지털기록계 및 테이프기록장치 등 현재까지 개발된 가장 정확하고 복잡한 장비들이 이용된다.

이 기술은 특히 정밀한 해저 지질구조를 규명할 수 있어 해양구조물과 해양시추 조사, 석유를 포함한 해저 지질광물자원탐사 등에 널리 응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국내 유일의 해상중력계로 중력자료를 획득, 해양분야의 지구물리학적인 해석능력도 높일 계획이라고 해양연측은 밝혔다.

온누리호는 1차로 동지나해와 제주도를 5일간 선회하며 「동지나해 퇴적분지연구」를 위한 96채널 탄성과 및 해상중력탐사」 등을 수행하고 오는 20

일 일단 제주에 귀항한후 다시 21일부터 12월10일까지 2차탐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2차항해는 제주도와 필리핀해역, 적도해역, 뉴질랜드에 이르는 장거리를 운항하며 「열대 서태평양 해황변동성 연구」와 「동아시아주변 해역의 화학물질수지 및 순환연구」를 수행한다.

### 政府문서 전자유통시스템

중앙전산경진대회서 金賞

정부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의 전산화를 촉진하고 전산기술의 보급을 확산키 위해 총무처 정부전자계산소가 주관, 해마다 실시하는 「중앙전산이용 기술개발 경진대회 및 시범전시회」가 11월12일 정부 제1종합청사에서 열렸다.

기관별 자체경진대회를 거쳐 중앙경진대회에 출품된 19개기관 44개작품 가운데 총무처가 출품한 「정부문서 전자유통시스템」이 이날 영예의 금상(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대한주택공사가 출품한 「건설사업정보시스템과 한국전력공사가 개발한 연구개발생산성 향상을 위한 종합정보시스템」 등이 각각 은상(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등 모두 7개 기관이 출품한 9개 작품이 상을 받았다.

이날 수상작품은 민간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업체들이 출품한 54개 작품과 함께 정부 제1종합청사 1층 로비에서 14일까지 전시된다.

## 제3세대 白金착체抗癌제 개발

경희대의대연구팀, 效果우수 · 毒性 50%줄여

기존의 항암제보다 항암효과는 더 뛰어나면서도 인체독성은 절반가량으로 줄일 수 있는 새로운 白金錯體항암제가 국내 대학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慶熙大의대 鄭址昌(약리학) 張聲九(비뇨기과학) 약대 盧榮洙교수팀은 제암효과는 우수하나 신장독성이 문제가 되고있는 기존 백금착체항암제보다 50%이상 독성을 감소시키는 대신 항암효과는 더 우수한 제3세대급 백금착체항암화합물 8종을 개발, 특허출원을 준비중이라고 발표했다.

백금착체항암제는 화합물의 분자구조에 들어있는 백금이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 암을 치료하는 것이다. 백금착체항암제는 제1세대로 평가되는 시스플라틴이 지난 76년 상품화됐으며 이를 개량한 2세대는 86년에 나왔다. 그러나 1세대의 경우 항암효과는 아주 뛰어나지만 인체독성이 문제가 돼 대용량을 투여할 수 없는 단점이 지적돼 왔다. 2세대는 인체독성은 줄였으나 항암효과가 1세대의 20~30%정도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평가돼 「독성은 줄이되 항암효과를 유지하는」 제3세대물질의 개발에 전세계가 나서고 있는 형편이다.

鄭교수팀은 약물을 암세포에 전달하는 캐리어그룹으로 사이

클로 핵산디아민을 썼고 암세포에 대한 항암효과를 갖는 화학구조인 리빙그룹(암세포에 도달 직후 떨어져 나가면서 남은 부분이 암세포의 핵산과 결합, 암세포분열을 정지시키는 보조역할체로 항암효과의 강도를 결정

짓는 중요한 요소)은 포스포린계화합물인 1, 2비스에타놀과 1, 3비스프로판을 각각 사용해 강력한 새 백금착체화합물 8종을 합성했으며 각종 실험에서 3종이 뛰어났다고 밝혔다.

鄭교수팀은 이들을 갖고 P388백혈병세포 및 살코머180 등 2종의 암세포종을 대상으로 항암효과를 알아본 결과 시스플라틴과 같거나 더 뛰어난 제암효과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 「'92 과학+예술展」 개막

전자음악회 · 첨단과학기술전등 열어

과학과 예술이 만나는 한마당잔치인 「'92 과학+예술전」이 11월5일부터 7일까지 한국종합전시장에서 열렸다.

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과 한국예술인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전자음악회 ▲소통을 위한 과학미술전 ▲첨단과학기술전 ▲컴퓨터그래픽스전 ▲일렉트로닉극장 등으로 구성되는 전시회와 과학예술에 대한 올바른 개념정립을 시도하는 학술세미나로 짜여졌다.

행사의 막이 오르면서 펼쳐진 전자음악회는 서울대 강석희교수가 만든 전자음악 「용」 「봉황」 「석사자」가 30여분동안 웅장하게 울려 퍼지고 서울예전 이인성교수가 이끄는 던농패가 컴퓨터를 이용한 합성음악을 선보였다.

소통을 위한 과학미술전은

전통적인 표현수단인 붓이나 물감·캔버스 대신 첨단과학을 도구로 사용하는 작가들의 초대작품으로 꾸며졌다.

군산대 김재권교수를 비롯한 21명의 작가들이 비디오아트·컴퓨터미술·설치미술·통신미술·대화형미술 등 다양한 장르의 미래미술 작품들을 소개했다.

첨단과학기술전은 인공현실감·홀로그래피·프랙탈기하학·종합정보통신망(ISDN) 등 이름도 생소한 첨단과학기술과 연구개발품들이 전시됐다.

한편 첨단과학이 예술창작에 활용되어 가고 있는 것을 일반에게 알려주기 위해 전시회기간중 KOEX대회의실에 서는 혼돈의 기하학, 인공현실감등 8개주제에 대한 학술세미나도 열렸다.

## 應用과학분야 技術개발에 편중

### 特許廳, 지난5년간 出願특허내용 분석

국내기술개발이 전자 정보통신 등 응용과학분야에 편중된 반면, 화학 물리 생명공학 등 기초과학분야는 연구실적이 크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88년9월~92년9월) 국내에 출원된 전자 정보통신분야의 특허출원은 외국인 출원건수보다 많거나 거의 대등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 생명공학 화학 등은 내국인출원이 외국인의 20%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핵공학 단백질합성 등 고도 기초기술출원은 거의 없어 내국인들이 기술기본원리탐구는 외면한채 개량기술개발에만 치중, 기술경쟁력약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부문별 출원내용을 보면 이 기간중 반도체 음성인식 등 전자분야 첨단기술특허는 내국인이 3천5백81건을 기록, 연평균 49%증가율을 나타내며 외국인출원(4천3백95건)의 81%선에 이르렀다.

정보통신분야의 경우는 연평균 증가율 36.5%를 기록하면서 7천3백37건을 출원, 외국인출원(7천1백38건)을 웃돌았다.

그러나 핵공학의 경우 5년동안 겨우 19건을 출원, 외국인출원(3백10건)의 0.6%수준에 그쳤으며 화학부문은 1천5백57건으로 외국인(9천2백49건)

의 17%선에 머물렀다. 생명공학 역시 내국인이 1백20건을 출원, 외국인출원(2백58건)의 절반수준에도 못미쳤다.

기술별로는 기계분야에서 자동차용 전자제어분사장치가 외국인 이 기간동안 1백58건을 출원했으나 내국인은 8건에 그쳤고 연소가스측매장치 원자력 발전용보일러 등도 외국인출원에 비해 크게 떨어져 기초과학 응용분야의 기술개발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분야는 인쇄 폐수처리 등 비교적 단순한 기술개발이 활

발할뿐 세라믹 유·무기화합물 재료분석방법 등 고도기술분야의 출원이 부진, 첨단기술수록 기술수준이 크게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형상기억합금 극저온합금 등은 내국인출원이 1건도 없어 이 분야의 기술개발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생명공학분야는 연평균 47%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출원이 늘고있으나 식물신물질 등은 출원이 없고 유전자공학기술도 단순효모생산에 치우쳐 외국과 기술격차를 줄이기에는 아직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토목 건설 섬유 의학 분야의 특허출원이 적어 이 분야의 국내기술개발이 활발치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 「熱가소성수지」복합재료 開發

### KIST, 레이저용품 등 활용도 다양

골프채와 테니스라켓 등 스포츠·레이저용품 등의 재료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熱硬化性수지보다 가공시간이 10분의 1정도로 짧고 내충격성 내화학성 등 물성이 우수한 熱可塑性수지 복합재료 제조기술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개발됐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고분자 구조재료연구실의 崔喆林·李光熙박사팀이 개발한 이 복합재료는 폴리페닐렌 설파이드(PPS) 계통의 수지와 탄소섬유를 결합시켜 힘을 가해도 깨지지 않는 성질을 갖고있어 스

포츠·레이저용품 뿐만 아니라 항공기 내장재와 동체, 주날개 부분 등 항공기 구조재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崔박사팀은 PPS수지가 녹은 상태에서 탄소섬유와 조합한 다음 상온에서 식히면 결정구조가 달라지는 점을 이용해 가공시의 온도조건, 냉각방법, 탄소섬유함도 등의 가공조건을 확립했다. 또 탄소섬유 강화재와 충전재등이 PPS의 경화반응에 미치는 영향까지 정량적으로 분석, PPS의 경화공정을 최적화시켰다.

## 중장기SW 육성발전전략 수립

### 韓國통신, SW기술 집중개발

한국통신은 외국 및 국내공급업체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해온 전자교환기 등 통신시스템 및 정보통신서비스용 소프트웨어기술의 자립기반구축을 위해 「중장기 소프트웨어 육성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관련연구인력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고 11월6일 밝혔다.

올해부터 2001년까지 3단계로 나눠 93년까지의 기반조성 단계에서는 통신망지원을 위한 통신소프트웨어개발을 강화하고 94~96년의 자립단계에서는 종합정보통신망(ISDN) 소프트웨어개발에 주력키로 했다. 3단계인 97년부터 2001년까지를 첨단선진화단계로 정하고 국제통신서비스시장 진출을 목표로 지능망 광역종합정보통신망(B-ISDN)등 고도통신망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기술을 확보한다.

한편 한국통신은 이같은 소프트웨어육성전략의 수행을 위해 현재 종업원대비 2.1%인 1천71명의 연구인력을 95년까지 3.3%선인 2천2백명, 2001년까지 5%수준인 3천9백명으로 늘려나가기로 했다.

#### 보일러技術研 발족

東洋보일러, 業界처음으로

국내 최대산업용 보일러 전문생산업체인 東洋보일러(대표

李重基)가 보일러업계 최초로 기술연구소를 발족했다.

東洋보일러는 연구소장인 李孝國박사를 비롯, 13명의 연구진을 확보하고 경기도 오산공장에 산업용보일러연구실 발전용보일러연구실 특수열기연구실 등 3실1과의 조직으로 이번에 설립된 연구소에 내년부터 연간 매출의 2%정도(93년 6억원)를 연구개발비로 투자할 계획이다.

#### 「미그헤드」 국내 첫개발

三星전기, 8mm캠코더핵심부품

三星電機(대표 黃善斗)가 8mm 캠코더의 핵심부품인 미그

헤드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미그헤드는 VCR테이프에 기록된 영상신호를 기록, 재생하는 것으로 신소재인 단결정 페라이트의 틈에 특수한 금속 박막을 입혀 전자기적 성능을 높인 것이다. 이 부품은 화면 재생능력이 높아 고화질을 요하는 8mm 캠코더에 사용되고 있으나 국산화가 안돼 日本업체가 독점해 왔다.

三星電機는 지난 90년부터 30억원의 개발비를 들여 개발에 성공, 이달부터 시험생산하고 내년부터 연간 20만개 규모로 양산에 들어가 오는 95년에는 연산 1백만개 규모로 생산량을 꾸준히 늘려갈 계획이다.

三星은 이 제품과 관련, 26건의 특허와 10건의 실용신안을 출원해 日本과 경쟁에 맞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 最高速 5.25인치 光디스크드라이브 開發

### 三星종합기술원, 다이렉트시크 서보기술도

三星종합기술원(대표 姜晋求)은 평균 정보검색시간이 35밀리 세컨드, 회전수 2천4백rpm으로 세계 최고속 정보검색시간을 갖는 5.25인치 光자키 디스크드라이브(모델명 SMA-506S)를 개발했다고 11월9일 발표했다.

三星종합기술원측은 광자키 디스크드라이브의 핵심부품인 초경량 분리형 헤드를 구동시키는 고성능 보이스 코일 모터 기술을 비롯, 다이렉트 시크

서보기술 등도 자체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개발된 光자키 디스크드라이브는 데이터 저장용량이 ISO 규격으로 6백50메가바이트로, 분진에 의한 기능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밀폐형헤드메커니즘과 자동개폐 카트리지도어 방식을 채택, 먼지유입을 방지한것이 특징이다. 이 제품은 IBM·매킨토시·NEC등의 PC기종과 SCSI포트를 탑재한 워크스테이션과 호환이 가능하다.

## 과학기술계뉴스



### 한국분자생물학회

韓國分子生物學會(회장 朴相大)는 지난 10월23~24일 양일간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92년도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와 한미 분자유전학 공동심포지움 및 교육부지원 유전공학 연구발표회를 서울대학 부설유전공학연구소협의회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차기신임회장으로 姜炫三교수(서울대)를 선출했는데 임기는 내년부터 2년간이다.

한편 학술행사에서는 총 1,330여명이 참가하고 367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는데 한미 분자유전학 공동심포지움에서는 鄭明熙교수(서울대)의 「포유동물 개념에서의 알킬화에 의한 상해회복의 조절에 관한 연구」를 비롯 Dieter Söll교수(미국 예일대학)의 「트랜스의 대장균 글루타민 tRNA 합성효소에 의한 tRNA의 인지에 관한 연구」 등 18편과 국내 초청연사 콜로퀴움에서는 金善榮교수(서울대)의 「HIV 감염시 RNA 합성의 조절」을 비롯 徐世源교수(서울대)의 「공업적 응용 효소들의 X선 구조결정」 등 26

편, 교육부지원 유전공학 연구 발표에서 朴相哲교수(서울대)의 「인체 상피세포의 분자적기작」을 비롯 朴忠雄교수(전북대)의 「성장조건에 따른 *Escherichia coli rnp $\beta$*  유전자의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에 관한 연구」 등 125편 그리고 추계학술발표회에서 兪显濬교수(한국과학기술원)의 「Cephalosporin C Acylase 유전자의 구성과 효소특성에 관한 연구」 등 198편이 각각 발표되었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서린과학(주) 등 27개 업체가 참여한 기기전시회도 함께 가졌다.

### 산업기술정보원

産業技術情報院(원장 朴弘植)과 포항공과대학(학장 金浩吉)은 지난 11월14일 각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학술정보자료를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학술정보 교류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국내에서 산업 및 과학기술 분야의 학술정보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양기관이 상호협력함으로써 정보이용자에게 보다 신속·저렴하게 정보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번 협약 체결로 정보자료의 요청이나 제공을 FAX나 온라인으로 당일내에 처리하는 시스템을 개설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이 가능하게 되었다.

현재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해외 정보자료의 절대부족으로 인한 자료입수의 어려운 현실에서 이와같은 기관간의 협력은 국내 産·硏系の 연구 개발에 기여할 것이 기대된다.

### 한국천문학회

韓國天文學會(회장 洪承樹)는 지난 10월16~17일 양일간 용인에 있는 경희대학교 우주과학과에서 추계학술발표회를 개최했다.

140여명의 관계자가 참가한 이번 추계학술발표회에서는 閔英基교수(경희대)의 「경희 천문대 현황과 향후 운영계획」을 비롯 이형목교수(부산대)의 「구상성단들의 역학적 진화」 및 金貞欽교수(고려대)의 「한국천문학의 과거와 미래」 등 3편의 초청강연이 있었다. 또한 천문학 교육/천문기기/태양계, 태양, 항성/성간물질/우리는 하, 외부은하/아마추어천문 등 6부로 나뉘 열린 일반발표에서는 禹鍾玉교수(한국교원대)의 「신교육과정 교과에 포함된 천문학 분야의 한일 대조」를 비롯 洪承樹교수(서울대)의 1명의 「이진 트리를 이용한 SPH 코드의 성능시험」 및 朴弘緒대장(천문대)의 「아마추어천문가의 연계를 위한 제언」 등 22편의 일반연제 발표가 있었다. 또한 첫날에는 경희 천문대 관측시설을 관람하는 기회도 가졌다.

## 과학기술계뉴스

### 한국심리학회

韓國心理學會(회장 李將鎬)는 지난 10월15~17일 3일간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에서 연차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새회장단으로 회장에 李將鎬교수(서울대)와 부회장에 李春載교수(성심여대)를 선출했는데 임기는 내년 10월까지이다.

또한 350여명이 참가한 연차 학술대회에서는 워크숍(서울대학병원)과 심포지움을 비롯 국제심포지움과 학술논문발표회가 있었다.

3개 주제로 열린 심포지움에서는 「한국인의 행동특성과 가치관 : 근로의식」에 관한 李鍾漢교수(대구대)의 「직장인의 분배원리 선호에 대한 개인주의-집단주의 관점에서 분석」 등 3편, 「심리사회적 환경이 청소년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沈應轍교수(강원대)의 「심리적 성장환경과 자아개념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등 3편, 「인간요인 연구와 심리학」에 관한 鄭燦燮교수(연세대)의 「한글텍스트의 가독성 연구」 등 3편이 각각 발표되었으며 주제별 종합토론이 있었다.

「인간과학에 대한 심리학적 기여」란 주제로 열린 국제심포지움에서는 제임스 부처교수(미국 미네소타대학)의 「이상행동의 문화간 이해-객관적

성격평가의 중요성」을 비롯 金基錫교수(고려대)의 「조건반사와 그 신경적 기초」 등 4편이 발표되었다.

한편 학술논문발표회에서는 李政摸교수(성균관대)의 「과학적 방법론의 개념적 변화: 인지과학이 심리학 방법론에 주는 의의」를 비롯 閔庚煥교수(서울대)의 「Vigotsky의 예술심리학」 등 65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 대한토목학회

大韓土木學會(회장 鄭然世)는 지난 10월24일 대구에 있는 경북대학교 공과대학에서 92년도 학술발표회를 개최했다.

1,250여명이 참가한 이번 학술발표회는 11개 분과 23개 분야로 나눠 열렸는데 철도분과에서는 申鐘瑞씨(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건설본부장)의 「경부고속철도건설과 기술특성」에 관한 특별강연과 고속철도관련 비디오편영도 있었다.

또한 각분과별 발표에서는 교통분과에서 鄭雄基씨(영남대)의 2명의 「가로교통배분에 있어서 Q-V관계변화에 관한 연구」를 비롯 구조분과에서 朴建淳씨(동일기술공사 건설연구소)의 3명의 「연속보에 대한 제어모델의 적용에 관한 연구」 및 魯官燮씨(한국건설기술연구원 도로연구실)의 3명의 「2차선 도로의 오르막 차선이용 교통현황과 설치지침」 등 287편

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번 학술발표회에서는 산업체와 연구소에서 대거 참여하여 산·학협동 차원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겠다.

### 한국지반공학회

韓國地盤工學會(회장 金翹圭)는 지난 10월16~17일 양일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가을학술발표회를 개최했다.

「준설·매립·인공섬」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가을학술발표회에서는 2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토시노부 아가끼교수(일본 토오대학)의 「최근 일본 오사카만에 건설된 3개의 인공섬」을 비롯 로이 벨박사(미국 Roger Foott Assoc. 社)의 1명의 「홍콩 신공항 건설과 관련된 지반공학적 결정사항」 등 2편의 초청강연과 韓武榮교수(경희대)의 「고농도 부유물의 침전시 계면현상 기구에 대한 수리 동역학적 해석」을 비롯 孫俊翼박사(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2명의 「동압밀공법을 이용한 지반개량 사례연구」 및 박성재교수(부산대)의 「부산 인공섬의 개요와 지반공학적 고려사항」 등 15편의 일반발표와 분과별 토론이 있었다.

또한 이번 학술발표회에서는 「칸사이 공황건설과 기타공황부대시설의 건설」에 관한 비디오 상영과 동아지질(주)를 비롯 흥인상사 등 기업체가 참여한 기술전시회가 있었다.

과총 회원단체 12월중 학술행사 일정

단체명	대표자	행사명	일시	장소
한국환경위생학회	이 용 욱	추계학술행사 및 세미나	12. 2	롯데호텔
한국요업학회	이 용 상	한일뉴세라믹스세미나	12. 2~4	힐튼호텔(경주)
대한기계학회	박 천 경	정밀계측기술강습회	12. 2~4	서울대 정밀기계설 계공동연구소
한국생약학회	김 태 희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12. 4	대한약사회관
대한공업교육학회	강 기 주	학술세미나	12. 4	용산구민회관
한국분석과학회	최 주	분석과학세미나	미 정	미 정

한국정보과학회

韓國情報科學會(회장 金夏鎭)는 지난 10월23~24일 양일간 고려대학교 과학도서관에서 제19회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발표회를 개최했다.

23일 열린 정기총회에서는 신입회장단으로 회장에 朴贊謨 교수(포항공대)와 부회장에 王昌鍾 교수(인하대), 禹治水 교수(서울대), 金勇瑞씨(쌍용컴퓨터 진무)를 각각 선출했는데 임기는 내년부터 2년간이다. 또한 총회에서는 權容來 교수(한국과학기술원)의 5명에게 공로상을, 陸犇均씨(쌍용컴퓨터 이사)에게 기술상을, 韓相榮 교수(서울대)에게 학술상을 각각 수여했으며, 총회에 앞서서는 환경청교수(중국 과학원 계통과학연구소)의 「CAD/CSC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비롯 李龍兌 회장(한국정보산업연합회)의 「정보산업에 있어서의 학교와 기업의 역할」에 관한 초청강연이 있었다.

한편 24일 1,350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추계학술발표회에서는 尹景鉉 교수(중앙대)의 「Ray-Tracing 알고리즘에 의한 Rendering 기법」 및 吳永煥 교수(한국과학기술원)의 「한국어 음성처리」에 관한 튜토리얼 발표가 있는 후 18개 분야로 나뉘어 270여편에 달하는 일반발표가 있었다.

한국정밀공학회

韓國精密工學會(회장 南宮垢)는 지난 10월31일 연세대학교에서 92년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1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金聖雄 회장(기아기공(주))의 「한국공작기계 산업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특별강연과 주종남 교수(서울대)의 1명의 「무심 연삭공정의 진원도 형성 해석」을 비롯 이동주 교수(충남대)의 「이상 평면에 대한 평면도의 측정 평가에 관한 연구」 및 김

광선 교수(한국기술교육대)의 1명의 「Chip Mounter에 있어서 Path Optimization 구현」 등 56편의 논문발표가 있었다.

대한산업의학회

大韓産業醫學會(회장 尹任重)는 지난 10월7일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제9회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신입회장단으로 회장에 尹任重 교수(가톨릭의대)와 부회장으로 金燉均 교수(부산대)가 선출되어 2년간의 임기에 들어갔다.

또한 100여명이 참가한 추계학술대회에서는 제임스 네더코트 교수(미국 존스홉킨스대학)의 「미국에서의 직업병 의학에 있어서의 현황」에 관한 특별강연과 노재훈 교수(연세대)의 「화학적 발암물질의 생화학적 지표」 등 2편의 특별주제 발표가 있었다.

### 대한가정학회

大韓家政學會(회장 李基春)는 지난 10월31일 이화여자대학교 가정과학대학관에서 제45차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신입회장으로 회장에 李基春교수(서울대)와 부회장으로 申尙玉교수(중앙대), 劉永珠교수(경희대)가 선출되어 2년간의 임기에 들어갔다.

또한 「인간생활과 환경문제」란 주제로 160여명이 참가한 추계학술대회에서는 鄭龍교수(연세대)의 「환경오염과 건강위해성」을 비롯 李瑞來교수(이화여대)의 「식생활에서의 안전성 확보」 및 尹貞淑교수(연세대)의 「주거환경과 주거」에 관한 강연이 있었다.

### 한국광물학회

韓國礦物學會(회장 金洙鎭)는 지난 10월23~24일 양일간 충북 단양군에 소재한 현대시멘트(주) 단양공장에서 제5차 추계학술대회 및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석회석 자원의 현황과 이용」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의 학술세미나에서는 37명이 참가한 가운데 우경식교수(강원대)의 「강원도 영월 부근의 돌로마이트의 성인」을 비롯 김용욱씨(한국자원연구소)의 「국

내 석회암의 분포 및 이용현황」 및 김수진교수(서울대)의 「시멘트 제조에 있어서 광물학적 연구의 중요성」 그리고 이철우씨(국진화학)의 1명의 「국내 석회석의 활용」에 관한 발표가 있었다.

또한 현대시멘트(주) 단양공장이 소재한 단양군 매포읍 고양리지역과 그 주변 일대를 답사했다.

### 한국펄프·종이공학회

韓國펄프·종이工學會(회장 辛東韶)는 지난 10월24일 대학로에 위치한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에서 92년도 古紙 리사이클링 제지기술자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매년 개최되는 이 연수교육은 올해로 제3회를 맞아 8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해외고지 자원확보책·脫墨이론과 실제」란 주제로 열렸다.

지구의 자원과 환경보전 차원에서 자국의 고지회수와 활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해외 고지자원의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해외 고지자원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 수입방책을 강구, 국내 각종 지류제품에 고지활용극대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로 열린 이번 연수교육에서는 辛東韶교수(서울대)의 「세계고지자원 현황과 그 확보전략」을 비롯 韓信鎬박사(한국화학연구소)의 「탈묵제의 최근동향」 및 裴常

男씨(금성전선(주)중공업 제지기계영업팀장)의 「GSC-VOI-TH 고지 탈묵설비의 최근동향」 등 6편의 강연이 있었다.

### 한국음향학회

韓國音響學會(회장 玉正權)는 지난 11월6일 대한건축학회 회관에서 건축음향워크숍을 대한건축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120여명이 참가한 이번 워크숍에서는 김선우교수(전남대)의 「건축음향이론과 평가방법」 등 6편의 연구발표가 있었다.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韓國建設技術研究院(원장 李濶植)은 지난 11월17일 동연구원 2층 세미나실에서 「극한지에서의 건설환경」세미나를 개최했다.

특히 러시아 야쿠츠크지역 가스개발 등에 필요한 건설기술 교류를 위한 이번 세미나에서 17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러시아 과학아카데미산하 동토연구소의 카멘스키소장(Dr. Kamensky)은 동토지역 가스파이프 건설방법으로 가스를 영하의 온도로 이송할 수 있는 지하매립법 등을 소개했으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趙千煥선임연구원은 극한지에서 적용하는 것으로서 기존의 말뚝보다 지지력을 5배까지 높일 수 있는 돌기형 말뚝 연구결과를 발표했다.